북한의남한교육왜곡선전내용분석

1972. 10.

목 차

Ⅰ. 서 언 ———— 1
 1. 연구의 목적 ———— 1
 2. 연구의 방법 ———— 2
 3. 연구내용 ———— 2
Ⅱ. 북한 교육의 개관 ———— 3
 1. 북한의 교육목표 ———— 3
 2. 북한의 교육내용 ———— 5
 3. 북한의 교육방법 ———— 6
Ⅲ. 남한 교육에 관한 북한의 선전내용분석 ———— 9
 1. 남한의 교육이론 및 정책에 관한 선전내용 ———— 9
 2. 남한의 교육목표 및 내용에 관한 왜곡선전내용 ———— 15
 3. 남한의 교육방법에 관한 왜곡선전 내용 ———— 21
 4. 남한의 교육실정에 관한 왜곡선전내용 ———— 31
Ⅳ. 요약 및 제언 ———— 43

I. 서　　언

1. 연구의 목적

「7 · 4 남북공동성명」은 지금까지의 대화없는 대결에서 대화있는 대결로 남북대결의 양상을 바꾸어 놓았다. 대화를 통한 대결에서 승리하기 위하여는 우리들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 특히 대화의 상대가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공산주의 교육과 선전교양을 철저하게 받은 북한 주민이라는 점에서 더욱 상대방을 철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북한 주민의 실정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 제분야가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교육 분야로 제한하여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교육실정에 대하여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북한 사회는 엄격히 통제된 사회임으로 자유로운 정보 교환이나 교육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교육 실정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은 북한정부가 선전하고 교육한 그대로이며 또 그렇게 알것을 강요받고 있다.

때문에, 북한정부가 주민들에 대하여 선전하는 내용과 교육정책을 분석하는 일은 곧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교육실정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일이 된다. 따라서 본연구는 북한이 학생들이나 주민들에 대하여 남한의 교육정책,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등에 대하여 어떻게 왜곡 선전 또는 교육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필요한 제안을 하는데 그 연구목적이 있다.

2. 연구방법

본연구는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여러가지 연구 방법을 사용할 것이나 문헌,분석방법이 주가 된다. 문헌은 북한 그들의 선전과 교양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원전과 기타 국내외의 이에 관련된 문헌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문헌 분석은 편의상 내용 영역별로 고찰하되 북한이 왜곡 선전하는 이유와 근거를 캐내는데 주안점을 둔다.

3. 연구내용

북한이 남한교육을 왜곡 선전하고 악평하는 기준이 되는 북한의 교육이론의 근거,교육정책,교육목표 교육내용,교육방법에 대하여 개활적인 고찰을 하고 실제 남한의 교육실정을 어떻게 왜곡 선전교육하고 있는 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 영역을 고찰하고자 한다.

(1) 남한의 교육 이론을 어떻게 왜곡선전 교육하고 있는가?
(2) 남한의 교육정책을 어떻게 왜곡 날조하고 있는가?
(3) 남한 교육의 목표에 대하여 어떻게 왜곡 선전하고 있는가?
(4) 남한의 교육내용에 대하여 어떻게 왜곡 선전 교육하고 있는가?
(5) 남한의 교육 방법에 대하여 어떻게 왜곡 선전하고 있는가?
(6) 남한의 교육 실정에 대하여 어떻게 왜곡 선전 교육하고 있는가?

Ⅱ. 북한교육의 개관

남한의 교육을 비방 비난하고 날조하여 선전한다 하더라도 북한도 그들 나름의 기준은 있다. 이 기준이 유물 사관에 입각하여 공산주의적 인간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산주의 교육이다. 이러한 북한공산주의 교육에 대한 이해는 북한이 남한교육에 대하여 날조, 비난하는 이유를 통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는 다음장의 남한 교육에 대한 북한의 왜곡 선전 내용을 이해하는데 길잡이가 되도록 북한교육의 방향과 기본내용을 기술한다.

내용은 편의상 북한의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으로 구분하여 기술한다.

1. 북한의 교육 목표

공산주의 사회에 있어서 교육은 정치이념 구현을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서 강조된다. 따라서 공산사회에 있어서 교육 목표는 정치 목표와 동일시되며 정치 변천과 다불어 운명을 같이 한다. 북한의 교육목표는 근본적으로 공산주의 인간형성에 있으나 그 구체적인 목표는 정치 변천과 더불어 변화를 거듭했다.

여기에서는 북한의 기본적인 교육목표에 대하여서는 고찰한다. 북한의 교육은 사상 교육, 이론 교육, 체육 교육으로 구분된다. 사상교육이란 유물사관에 입각한 세계관과 계급 투쟁에 투철한 공산주의자를 육성하는 것이며, 이론 교육은 물질의 생산자로서 필요

한 지식과 기능을 소유한 인간을 기르는 것이며, 체육은 혁명 투쟁과 노동에 견디어 낼수 있는 사람을 기르자는 것이다.

북한은 특히 사상 교육을 강조하는바 그이유는 공산주의적 사상을 철저히 갖지 않으면 많은 지식과 기능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계급 투쟁과 혁명사업에서 해로운 존자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계급 사상을 주입시키는 일은 북한교육의 일차적인 목표가 된다. 북한은 레닌이 한 "모든 학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강의의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방향이다"라는 말을 교육 실천의 기본으로 삼고 있다. 자연과학 자체는 계급적생활을 갖고 있지 않으나 그 지식을 소유한 인간은 어느 계급의 출신이며 그 계급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허득한 지식을 주관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다. 따라서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공산주의의 교육 목표가 사상교육에 일차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하기도 하다.

북한교육 목표를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 보기 위하여 김일성의 <공산주의 교양에 대하여>라는 연설에서 강조한 기본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우월성을 인식시킨다.

② 새것은 반드시 승리하고 낡은 것은 멸망한다는 진리를 인식시킬것.

③ 공산주의 건설에 장애가 되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철저히 배격한다.

④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 정신을 덜어 줄것.

⑤ 노동 애호 정신을 길러 줄것.

⑥ 투철한 혁명 사상으로 부단 전진하고 계속 혁신하는 정신을 기를 것.

이와 같은 김일성의 지시는 북한의 공산주의 교양, 계급 교양 및 혁명 전통 교양에서 기본방향이 되고 있다.

2. 북한의 교육내용

북한은 그들의 교육목적에 따라 교육내용도 사상교육을 위주로 하는 역사와 사회과 교육을 강조하고 역사에서는 유물 사관에 입각한 계급투쟁사를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사회과에서는 맑스 레닌의 자본주의 멸망논, 공산주의의 승리와 우월성에 대한 신념,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계급투쟁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사상교육 다음으로 강조하는 내용이 과학이다. 이것은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생산적 인간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북한이 자연과학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과는 다르다. 우리는 학문으로서 특히 순수기초과학을 학교교육에서 강조하나 북한은 처음부터 생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당장 생산과 직결 되는 응용과학을 학교교육에서 강조하며 같은 이론보다는 현장에 직접 적용되는 기능의 습득을 위한 내용을 <과학과>에서

주로 담고 있다.

북한은 학교 교육의 목적을 학생들에게 유물론적 세계관을 형성 시켜주며, 자연과 사회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넣어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위와 같이 교과 내용을 페제 하였다.

그리고 체육은 군사훈련으로 대치하여 각종 군사훈련을 교육내용으로 넣어 가르치고 있다.

3. 북한의 교육방법

북한은 교육방법을 교수방법과 교양방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교육방법 전개의 원칙은 지식의 자각적 습득과 인격의 전면적 발전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교수과정에서는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별 특성을 고려하며, 적극적 창조적 활동을 장려해야 한다고 하면서 북한은 계발식 교수법을 전면적으로 교수과정에서 채용하고 있다고 한다. 계발식 교수법이란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학생들의 자립적 사고와 창발성을 고도로 발양시키는 방법"이라고 한다.

이러한 수업방법은 계급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상호 비판하고 토론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는 공산투사, 혁명투사로 만드는 데 악용되고 있으며 담화법이란 것도 있는 바 이것도 학생과 교원과의 담화를 통하여 그들을 공산혁명 투사를 회유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북한은 실험, 실습지도를 강조 하는바 앞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생산에 직결되는 지도란 자연 실험 실습에 의존 될수 밖에 없다.

여기서 실험 실습이란 우리가 말하는 학교 실험실의 연구, 실습과는 약간 다르다. 북한은 실험 실습을 직접 공장 현장에 나가서 하는 예가 많으며 <학생의무 노동제>를 규정하여 모든 학생들이 생산현장에 나가 생산노동을 하도록 하면서 이러한 실험 실습을 강조하였다.

교양방법 (우리의 생활지도)은 긍정적 모범에 의한 감화법을 북한은 내세우고 있다. 이것은 그들의 표현에 의하여 학생들에게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주므로써 가슴속으로 부터 감화를 주어 교화하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주로 이러한 감화법은 계급교양과 혁명전통교양, 유일사상교양을 위한 무기로 사용된다.

소년단과 사로청을 통하여 청소년 학생들을 혁명투사로 만들고 있는바 여기에서는 조직생활과 집단생활을 강조하여 개인의 요구나 자유를 말살하며 그런 생활을 습관화 하도록 한다. 그리고 공개적인 상호 비판을 원칙으로 사상토론을 주로 진행하여 계급투쟁 의식을 고취시킨다.

우리는 이상에서 간략히 북한의 교육목표 내용, 방법에 대하여 고찰 하였다.

Ⅲ. 남한교육에 관한 북한의 왜곡선전내용분석

본장에서는 남한 교육의 실정에 대하여 북한이 북한 주민들이나 학생들에게 어떻게 왜곡 선전 또는 날조하여 교육하고 있는 가를 기술한다. 편의상 내용은 남한의 교육이론 및 정책에 관한 왜곡 선전 내용, 남한의 교육목표 및 내용에 관한 왜곡 선전 내용, 남한의 교육방법, 그리고 교육실태에 관한 왜곡 선전 내용으로 구분하여 기술한다.

1. 남한의 교육이론 및 정책에 관한 왜곡 선전 내용

존 듀이의 실용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형성된 경험을 중시하는 교육이론을 진보주의 교육이라 하는바 우리는 이를 <새교육>이란 이름으로 받아드려 해방 이후 우리 교육의 개선에 크게 반영한 바 있었다. 그러면 북한은 이러한 진보주의 교육이론에 대하여 어떻게 왜곡 평가하고 있는가?

남한 교육의 이론적 근거는 듀이의 실용주의 철학에 입각한 진보주의 교육원리에 있다고 말하면서 진보주의 교육이론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관한 이론은 ≪유용한 것이 진리≫라는 실용주의 철학의 반동적 본질로 부터 출발하여 ≪아동에게 유용한 것≫만을 중심으로 교수를 진행한다. 여기로 부터 아동들은 자기들에게 ≪유용한 것≫만을 학습하게 된다. 즉 아동의 학습은 ≪유용한 것≫이라는 ≪범 위≫에 국한되며 협애하고 천박하고 피상적인 ≪경험≫, 따라서 왜곡된 ≪경험≫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함으로서 ≪행동에 의한 학습≫은 아동들로 하여금 학교에서 체계적 과학지식을 습득하지 못하게 한다. ……

실용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유용론≫적 교수론은 과학적 체계를 파괴하며, 진리를 왜곡하며, 착취계급의 반동적 통치를 공고화 하는 데만 유용한 것이다. 〃

이상의 고안에서 본바와 같이 북한은 진보주의교육 이론 자체를 왜곡할 뿐만 아니라 남한 교육의 뿌리가 전적으로 여기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선전한다. 남한은 전적으로 미국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교육도 식민지 노예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이론도 이에 알맞게 미국의 실용주의 교육이론을 차용하여 국민을 우매화 시키는 식민지 노예교육을 하고 있다고 북한은 선전하고 있다.

그러면 남한의 교육정책에 대하여는 북한 주민들이나 학생들에게 어떻게 선전하고 있는가 ?

북한은 남한의 교육정책을 <식민지노예교육 정책>으로 표현하면서, 일제의 노예교육 잔재를 그대로 답습하고 거기에 미국의 제도를 혼입하여 학생들에게 과학적인 지식이나 이론적인 지식을 가르치지 않고 오직 자본가 계급과 미국의 착취에 적응할 수 있는 식민지 국민의 노예근성을 길러주기 위하여 교육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북한은 남한에서 실시되고 있는 식민지 노예교육 정책으로 <청소년 학생들에 대한 우매화 정책>을 쓰고 있다고 선전하면서 <학원을 군사화 및 파쇼화>, <모리화>한다고 북한 주민 학생들에게 비난하고 있다.

북한이 말하는 남한에서의 우매화 정책이란 무엇인가 ?

우매화 정책이란 글자 그대로 청년 학생들을 우매화 시켜 지배계급이나 미국에 순종할 수 있는 피지배계급으로서 부지런한 노예를 교육할 목적으로 남한에서 실시되고 있는 교육정책이라는 것이다.

북한은 남한이 우매화 정책의 실시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선전한다.

〃지배 계급은 자기들의 착취를 효과적이며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착취자적 지위를 보존할 목적으로 대중에 대한 우매화 정책을 실시한다.〃

또한 남한에서 청소년 학생들에게 고도의 이론적 지식이나 과학적 지식을 가르치지 않고 착취에 적응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지식만을 가르침으로 청소년 학생들을 우매화 시키고 있다고 다음과 같이 선전하고 있다.

〃객관적 세계의 합법칙성을 인식케 하는 과학지식이 근로자들과 학생들을 자기입장에 대한 확연한 목적으로 무장시키며 그 목적에 대한 길을 가르쳐 주며 목적을 달성함에 대한 의지를 견고케 하여 주며 승리에 대한 신심을 배양함으로서 계급투쟁을 승리에로 이끌기 때문이다.〃

북한은 남한에서 <반공 • 도덕>을 근간으로 미국의 식민 통치를 합리화하며 미국식생활 양식과 문화를 청소년 학생들에게 배우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도덕적 가치를 성으로 절대화 하여 반공 도덕을 종교라고 위착시키고 있다고 선전한다. (공산주의하에서

종교 교육은 있을 수 없다)

북한은 「홍익인간」의 교육 이념도 위장된 것이며 이러한 미명하에 청소년 학생들을 우매화 시켜 식민지 노예를 만들고 있다고 다음과 같이 선전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홍익인간>이란 미명하에 청년 학생들을 미신과 신비주의, 종교적 편견등 온갖 몽매주의의 진흙탕속에 빠지게 하며 민족적 이익도, 계급적 이해 관계도 초월한 <융화> 사상과 굴종사상에 물 젖게 함으로서 자기들에게 순종하는 식민지 노예를 만들려 하여 왔다."

북한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남한이 <반공 도덕>을 위주로 식민지 노예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선전하면서 모든 문제를 이에 관련시켜 왜곡 선전한다. 해방 후에 내한하여 남한의 교육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한바 있었던 「피바디 교육 사절단」까지도 악평하면서이 사절단의 후원하에 「전국 사회생활과 교육자 협의회」를 조작하여 <반공·도덕>을 강화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연구조치를 하게 하였다고 선전하면서 다음과 같이 「피바디교육사절단」에 대하여 악평하고 있다.

"≪피바디 교육 사절단≫이란 11956년 괴뢰<정부>와 미국의 <피바디 사범대학>간의 <계약>에 의하여 남조선의 교원 양성 및 재교육, 교과 과정, 교수방법 문제들을 지도 감독하고 있는 <고문단>격의 그루빠다."

이상에서 북한이 남한 교육을 우매화시키는 교육정책이라고 북한 주민들이나 학생들에게 비난 선전하고 있는 내용을 대략 고찰하였

다.

다음은 남한이 학원을 군사화 및 파쇼화 했다고 선전하는 내용을 기술한다.

자본주의의 최후 단계인 제국주의는 최대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국내 인민을 가혹하게 억압 착취할 뿐만 아니라 식민지 및 후진국가들을 약탈하고 예속시키며 세계의 경제적 지배권을 쟁취하기 위하여 전쟁 도발을 일삼게 된다고 맑스-레닌의 이론을 빌어 자본주의의 전쟁 불가피성을 선전하면서 미국의 지휘하에 남한의 모든 학교가 군사화하여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다음과 같이 북한 주민들에게 왜곡시키고 있다.

"미제와 괴뢰 도당은 남조선 학원에서 괴뢰군의 초급 지휘원의 대량확보를 위하여 남조선 청년 학생들 속에 침략 전쟁사상, 호전사상을 주입하며 강제적인 군사훈련을 실시하면서 미제와 괴뢰 도당의 값 싼 대포 밥으로 내 몰려고 시도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은 남한이 전쟁 도발을 위하여 학원을 군사화할 뿐만 아니라 파쇼화 하고 있다고 선전한다.

학원의 군사화는 자연 학생들의 거센 반발과 반대에 부딪치게 되는 바 이를 무릅 쓰고 학원을 군사화하기 위하여는 자연 학원을 파쇼화 하여 강압으로 지배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남한·학원의 형편이라고 북한은 선전한다.

정치로 부터 교육의 중립을 주장하는 남한교육에 대하여 북한은 교사와 학생들이 학원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정당한 권한을 무력으로 탄압하고 학원을 파쇼화 하기 위한 구실이라고 선전하면서 남

한의 모든 교사 학생의 단체는 파쇼화의 흉책에 의하여 모두 해산되고 없다고 북한 주민들을 왜곡시킨다.

남한에서의 모든 교육활동은 일체 자유가 말살되고 오직 침략 전쟁을 위한 군사훈련만이 파쇼적으로 행해 지고 있다고 북한 주민들에게 선전하면서 심지어는 교원 이동 제도 까지도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교사를 축출하기 위한 방편으로 행해 지고 있다고 북한은 선전한다. 이와 같이 북한은 낱낱의 건에 대하여 북한 주민들에게 왜곡 선전하고 있다.

다음은 남한에서 학원을 모리화 하고 있다고 하는 북한의 선전 내용을 고찰해 본다.

경제적 파탄과 부정 부패가 극심한 남한은 학원을 지배계급의 착취 수단화하고 있고, 부족한 군사 경찰비조달의 수단으로서 학원을 모리화하고 있다고 북한은 선전한다. 남한은 정부 예산의 거의 70 %를 군사비에 돌리고 있기 때문에 문교 예산은 최소한도 필요한 금액의 60 ~ 36 %정도 밖에 지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의무교육 마저도 교실 신축비 등의 명목으로 막대한 공납금을 받아 군사 경찰비로 돌려 쓰고 있다고 북한은 선전한다.

사립학교는 정부와 결탁한 모리배들이 경영함으로 착취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정치운동자금의 조달을 위한 수단으로 되고 있다고 북한공산당은 주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전한다.

" 그들은 미제와 괴뢰도당의 비호하에 거액의 (공납금>과 잡부금을 가혹하게 수탈 할 뿐만 아니라 모리 간상배들과 결탁하여 중간상인으로서 학생들에게 각종 상품을 강매하여 자기들의 <정

치운동>자금까지 그들에게 들씌운다.

학원의 모리화는 자연 우매화 교육정책과 관련되기 때문에 많은 공납금을 징수하여 청년 학생들의 진학기회를 박탈한다고 다음과 같이 북한은 선전한다.

〃미제 괴뢰도당은 청소년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있는바 그들은 학교문을 좁히고 입학경쟁을 격화시켜 모리의 근원을 조성하며 다액의 공납금과 잡부금을 학생들에게 들씌움으로서 그들의 진학의 길을 가로 막는다.

이상에서 남한의 교육정책은 식민지노예 교육정책이라고 선전하면서 북한이 북한 주민들에게 왜곡시키고 있는 내용을 고찰하였다. 북한은 식민지 노예정책의 근본은 청소년 학생들을 우매화하는 정책이라고 하면서 남한이 학원을 군사 파쇼화, 모리화하고 있다고 왜곡 선전한다.

2. 남한의 교육목표 및 내용에 관한 왜곡 선전내용

「홍익인간」이란 교육이념에 대하여도 북한은 청소년 학생들을 우매화시키기 위한 정책과 관련된다고 말하면서 「홍익인간」의 교육이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식민지 노예교육정책의 침략적 본질을 은폐하기 위하여 반동적 교육이념을 조작하였는 바 <홍익인간>이 바로 그것이다. - <홍익인간>이란 미명하에 청년 학생들을 미신과 신비주의, 종교적 편견등 온갖 몽매주의의 진흙탕 속에 빠지게 하며 민족적 이익도 계급적 이해관계도 초월한 <융화>사상과 존중사상에 물

짓게 함으로서 자기들에 순종하는 식민지 노예로 만들려 하여 왔다. "

이와 같이 북한은 남한의 교육은 식민지 노예교육으로 규정하고 모든 교육이념이나 목표를 식민지 노예로서 적합한 인간을 형성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라 선전한다.

그러면 남한의 교육내용에 대하여는 어떻게 선전하고 있는가 고찰해 본다.

교육내용도 식민지 노예를 육성하기 위한 우매화정책과 일관성있게, <반공>숭미사상과 봉건 노예사상을 주입하기 위한 내용, 계급협조와 종교사상을 주입시키기 위한 내용, 맑스-레닌주의 이해를 비방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북한은 북한의 청소년 학생들에게 교양 선전한다.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홍익인간」의 이념하에 청소년들을 노예로 교육하기 위하여 비과학적이며 신비적인 미신과 숭매사상에 물젖게 하고 있으며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선진 과학지식과 진리를 공부할 수 없도록 남한에서 하고 있다고 선전하면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반공·도덕>을 위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북한은 선전한다. <반공·도덕>은 필수과목 총 시간의 46%~56%라는 많은 시간을 배당하고 있으며 그 목적은 청소년 학생들을 식민지 노예로서의 성격과 습성을 기르고 미국과 남한 정부의 침략정책을 은폐하는 데 있다고 선전한다.

<반공·도덕>다음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이 <실업교육>이라고 말하면서 남한에서 실업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청소년 학생들을 미제와 지주 자본가들의 <근면>한 노예로 만들기 위하여 <실업교육>에도 일정한 학과목을 배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남한에서 <반공·도덕>과 <실업과>만은 강조하고 사회과나 과학과목 등을 교육과정에서 극히 제한하여 과학적지식과 이론적 사고력을 배양하는데 방해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과학적사고와 자립적 사고를 할 수 없는 노예근성의 충복으로 우매화하고 있다. 북한은 다음과 같이 선전한다.

"<반공도의교육>과 <실업교육>만은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지식과 이론적 사고력을 배양하는 과목을 과정안에서 극히 제한하고 있다."

과학적인 사고와 주체적인 사고를 할 수 있고 깊은 사회학적인 이론을 습득하게 되면 계급투쟁이 자연 일어나게 됨으로 남한의 청소년들을 우매화하기 위하여 <과학><수학><사회생활>과목 같은 것을 두리뭉실 가르침으로서 그들의 과학적인 사고와 체계적인 지식습득을 방해하고 있다고 북한은 선전한다. 예를 들면 산수, 대수, 삼각은 각각 별개의 교과목으로 단순한 수 개념으로 형성으로 부터 출발하여 자연의 수량적 및 공간적 관계와 그 변증법적 함수관계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습득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학>이라는 한개의 과목으로 두리뭉실 묶어 단편적으로 교수함으로서 과학의 체계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동물, 식물, 생물, 물리, 화학등을 자연계의 질적으로 구분되는 교과인데도 <과학>이라는 하나의 과목으로 통합하고, 특히 역사, 지리, 경제,

정치 등의 경우에도 서로 각이한 자연 현상과 사회 현상까지도 <사회생활>이라는 하나의 과목으로 통합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의 습득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과목을 통합하여 단편적 지식 경험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과학적 사고 형성을 방해하는 것은 어용학자 듀이의 실용주의 교육이론에 의거하고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미제와 괴뢰도당이 조작한 과정안은 미제 어용 철학자 죤 듀이의 반동적 실용주의 교육이론에 의거하고 있다. 듀이는 체계적 과학 지식 교수와 과학적 세계관 형성을 반대하며 계급의식을 마비시키고 계급투쟁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아동의 <일상생활경험>에 의거하여 학교 교육 과정안을 작성할 것을 주장하였다.″

「교련」과목에 대하여는 침략의 목적으로 체육시간까지 교련과 함께 군사훈련에 여념이 없다고 선전한다. 그리고 선택과목은 학년이 올라 갈 수록 그 비중이 높아지는 바 이는 필수과목시간을 격하시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지식의 습득을 방해 남한 청소년 학생들을 우매화하고 있다고 북한공산당은 선전한다.

<반공·도덕>을 중심으로 모든 교과는 미국을 숭앙하도록 하는 내용과 봉건 노예 도덕으로 내용이 구성되고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미국인의 악날성을 선전하고 있다.

″어떤 참고서에서는 매일과 같이 남조선에서 백주에 선량한 주민들을 습격하여 재물을 약탈하는 흉악 무도한 미제 날강도놈을 (천진 난만)한 사람이라느니 <돈의 여수가 깨끗한 사람>이라고 하며 조선여성을 희롱한 끝에 권총으로 사살하거나 벌거벗겨

몸에 뼁끼칠까지 하여 거리에 내 쫓는 양키놈들을 <여성에 대하여 친절>한 사람이라고 쓰고 있다. "

고등학교 사회과 도덕교과의 <화랑도의 근본 정신>이란 제목에서 (오계)를 비롯한 봉건 도덕에 대하여 숭앙하도록 하는 내용의 예를 들면서 남한에서 봉건도덕을 학생들에게 강요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들고 비난 선전하고 있다.

" 첫째로, 낡아 빠진 봉건도덕과 미제에 굴종하는 노예 도덕은 다 같이 맹종 맹동의 도덕이므로 이것은 서로 결합되어 미제에 복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데 있다.

둘째로, 봉건도덕 유지는 복고주의를 유포시키는 데 있어서 편리하며 인민들 특히 청소년 학생들을 우매화하고 그들의 민족적, 계급적, 의식을 마비시키는데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데 있다.

세째로, 봉건도덕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봉건적 착취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남조선 현실에서 아직도 일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민족적 탈을 들씌움으로써 자기들의 매국 매족적 정체를 은폐하려는 데 있다.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간의 협조와 타협은 자본주의의 모순을 탈피하고 훌륭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고 하는 이론은 허위 날조이며 계급의식을 말살하고 매국 매족적 행위를 은폐하며 착취와 억압을 영구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선전하면서 <사회생활>교과 모두 이런 내용으로 가득차 있다고 왜곡한다.

또한 종교 교육을 실시하여 있지도 않은 신을 믿게 하며 유물론적 세계관의 형성을 방해하며 청소년 학생들을 신비주의에 빠지

게 하고 우매화한다고 북한공산당은 다음과 같이 선전한다.

"미제 괴뢰도당은 청소년 학생들을 무지와 몽매속에 몰아 넣으며 온순한 노예로 만들기 위하여 그들에게 종교사상 즉 래세에 대한 환상, 착취와 억압에 대한 무조건적 굴종, 신비주의 등 온갖 비과학적이고 허황한 사상을 주입시킬 것을 교원들과 학교들에 강요하고 있다."

3. 남한의 교육방법에 관한 왜곡선전 내용

북한은 교육방법을 교수방법과 교양방법으로 구분하는 바 전자는 우리의 수업방법에 후자는 생활지도법에 대조되는 말이다. 교수방법은 다시 식민지 노예교육방법인 주입식 교수법과 학생들의 자립적 사고와 창발성을 고도로 발휘시키는 계발식 교수방법으로 유형을 구분하고 북한에서는 계발식 방법을 전반적으로 택하고 있는 반면 남한에서는 우매화교육정책에 따라 주입식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교양방법에도 학생들에게 모범적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가슴속으로 부터 공명을 주어 교화하는 감화법과 억압과 회유를 특징으로 하고 있는 훈육법이 있는 바 북한에서는 긍정적 모범에 의한 감화법을 채용하고 있는 반면에 남한에서는 훈육법을 사용하여 학생들은 착취계급의 도덕과 생활양식에 부응할 수 있는 노예를 만들기 위하여 획책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남한의 교육방법에 관하여 왜곡 선전하고 있는 내용을 수업방법과 생활지도방법으로 나누어 고찰한다.

(1) 교수방법에 대한 왜곡선전

북한은 남한의 교수방법을 주입식 교수법이라 규정하고 이 방법은 남한이 우매화 정책에 따라 학생들을 미국과 지배계급의 노예로 만들기 위하여 일제의 식민지 노예 교육방법을 그대로 계승 개악한 것이라고 힐난하면서 주입식 교수법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예거하면서 왜곡선전한다.

남한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입식 교수법의 종류에는 첫째 일제 식민지 노예교육법의 전형인 강압적 주입이 있는 바 이것은 교수 내용의 무조건 암송과 실행의 강요로 진행되는 교수법이라는 것이다. 둘째, 미국식의 방법을 채용한 것으로 유도적 주입식이 있다. 이 방법은 학생들을 일정한 분위기와 조건속으로 유도하여 놓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교수내용을 학생들에게 넣어 주면서 학생들 자신이 내용을 교수하는 듯이 가장하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위의 2가지 방법이 남한에서 동시에 사용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유도적 주입방법이 주로 채택하고 있으며 이방법은 강압적 주입식보다 훨씬 교활하고 해독이 큰 방법이라고 선전한다.

또한 유도적 주입식은 존•듀이의 교수론에 근거하고 있는 방법으로 겉으로는 교수에서 실천을 중요시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사람을 미혹 혼란케 하는 수법이라고 북한 공산당은 선전하면서 강압적 주입식과 유도적 주입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주입식 교수에도 여러가지 유형이 있는바 그것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운다. 그 하나는 강압적 주입이며 다른 하나는 유도적 주입이다.

교수가 내용의 무조건 암송과 실행의 강요로 진행되는 것은 전자에 속하며, 학생들을 일정한 분위기와 조건속으로 유도하여 놓고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내려 먹이면서도 마치 학생들 자신이 자진하여 교수 내용을 접수하는 듯이 사태를 가장하는 것은 후자에 속

한다.

강압적 주입에 비하여 유도적 주입은 일층 교활하며 따라서 그것이 주는 해독은 더욱 크다"

식민지 노예 교육내용을 학생들에게 넣어주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노예교육방법인 주입식 교수방법을 남한에서 택할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주입식 교수방법은 Dewey가 주장한 교육방법이라고 하면서 Dewey 교육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선전한다.

"그(Dewey)의 주장은 마치 교수에서 실천을 중요시하는 것처럼 보이나 그것은 사람들을 미혹 혼란케 하는 수법이며, 그 본질은 우매화 정책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북한공산당은 남한의 교육방법을 미국의 식민지 노예화 정책에 따라 구성 노예 교육내용을 주입하는데 알맞은 것이라고 선전하면서 이러한 유도적 주입식에 의해 교수가 이루어지는 예를 「단원 학습」을 들어 비난 선전하고 있다.

북한에 의하면 「단원」이란 반동적 교육이론(Dewey의 이론)에 근거하여 조작된 교재, 교수 자료인바 이것들은 착취사회의 환경속에서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협애하고 피상적인 흥미, 동기의 테두리안에서 선택 배열된 왜곡된 지식 경험의 단편들이라고 한다.
그리고 「단원 학습」을 하는 목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날조하고 있다.

"「단원학습」의 목적은 학생들에게 과학적 지식을 소유시킬 대신에 무용하고 왜곡된 토막(지식)을 주입시키며 사물과 현상의

본질을 파악시킬 대신에 피상적이고 왜곡된 지식을 주입시키는데 있다.〃

왜곡된 토막지식이나 경험, 미국의 식민지정책이나 지배계급의 착취등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날조된 내용으로 구성된 교과나 단원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자연 강압적 주입방법이나 회유적 주입방법을 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남한의 실정이고 그렇게 함으로써만이 학생들이 과학적이고 체제적인 지식에 접할 수 있는 길을 차단하고 자립적이고 적극적인 사고 발달을 방해하여 그들을 우매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남한이 부득이 「단원 학습」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단원학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비난 선전 하고 있다.

〃미제와 괴뢰 도당은 「단원학습」에서 이와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과서의 내용들도 전적으로 이에 적응하게 편찬하였다. 중학교 수학 교과서만 보더라도 수학적 내용 왜곡된 역사적 사건, 날조된 지리적 자료들을 혼합 나열하여 놓음으로써 청소년 학생들로 하여금 수학도 역사도, 지리도 모두 알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것은 학생들의 과학적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완전히 봉쇄 차단하고 자립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억압 저해함으로써 그들을 우매화 하려는 미제와 괴뢰도당의 흉악한 목적에서 나온 것이다.〃

노예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단원학습」은 <문제법>, <구안법> 등 여러가지 방법을 사용하나 학생들은 공산주의는 나쁘고 민주주의는 좋다는 교사의 주장이 허무맹랑하고 날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강압적 주입이 불가피하다고 북한공산당은 다음

과 같이 선전한다.

〃그러나 많은 학생들은 교원이 사실을 허위 날조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여기로부터 강압적 주입은 불가피적이다.
남조선학교들에서 몽둥이 규율이 적용되는 근원은 바로 이러한 주입식 과정 자체에 있다.〃

남한에서 시청각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사실을 북한은 다음과 같이 비난한다. 〃직관〃을 강조하는 것은 시청각교육의 중요한 전제였다. 직관을 강조하는 의도는 우매화 정책에 따라 날조 왜곡된 직관물로, 사실을 기만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사물과 현상 외면에만 매여 달게 함으로써 그들의 사고발달을 방해하는 데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전하고 있다.

〃이미 보아온 바와 같이 남조선 학교의 교수 내용은 비과학적인 것, 허위 날조된 것으로 충만되어 있는 만큼 왜곡된 내용을 마치 (진리)인 듯이 묘사하고 설명하기 위하여서는 날조된 직관물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즉 미제와 괴뢰 도당은 연극, 영화, 환등기, 축음기, 녹음기, 회화, 모형, 도표, 표본, 사진 등등으로써 청소년 학생들을 기만하며 진실을 왜곡 선전하고 있다.

.......그것은(시청각 교육) 청소년 학생들로 하여금 사물과 현상의 외면에만 매여 달리게 함으로써 그들의 사고의 발전을 저해한다.〃

북한은 심지어 남한의 시험방법 까지도 왜곡 비난 하고 있다. 시험이 필답고사 위주이고 더욱이 객관적 위주로 하는 저의는

학생들의 깊은 사고와 지적 발달을 억제하여 우매화 시키는 데 있다고 다음과 같이 선전하고 있다.

" - 〈필답고사〉에 치중하고 있는 바 그것은 문제 설정 형식에 있어서나 그의 과학적 내용에 있어서나 할것 없이 학생들의 사고를 억압 마비 시키며 학습 열의를 저하 시키는 데 이용되고 있다. "

(2) 생활지도방법에 대한 왜곡 선전

북한은 생활지도를 교양방법이라고 표현하면서 자기들은 긍정적 모범에 의한 감화 교양을 학교에서 실시하는 공산주의 교양의 원칙으로 삼고 있는 반면에 남한에서는 억압과 회유를 특징으로 하는 훈육법을 교양방법으로 채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들의 감화법과 남한의 훈육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선전하고 있다.

" 긍정적 모범에 의거하는 감화교양은 공화국 북반부 학교에서 실시하는 공산주의 교양의 기본 원칙이다.

공화국 북반부 학교들의 이러한 교양 원칙은 후대 교양사업을 혁명 전통교양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교양사업이 혁명 전통 교양과 긴밀히 결부됨으로써 청소년들로 하여금 우리 도덕의 일반적 행동·원리를 배우게 할 뿐만 아니라 혁명투사들의 산 모범으로써 청소년 학생들의 심금을 울리게 하며 따라서 그들에게 감화를 준다. "

" 더우기 착취 계급을 반대하는 근로 대중의 투쟁이 강화됨에 따라 착취 계급의 위선적인 도덕과 부패 타락한 생활 양식은 여지없이 폭로 된다.

여기로 부터 착취 계급은 자기들의 도덕과 생활양식은 강압적인 방법을 피착취 계급들의 청소년 학생들에게 부식시키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착취 계급이 지배하는 사회의 학교들에서 강요되는 교양이 억압적인 (훈육)으로 되는 것은 불가피적이다. 〃

이와같이 북한은 교양방법을 통하여 청소년 학생들을 공산주의 노예로 만드는 데 안간힘을 쓰면서도 우리의 생활 지도방법을 강압적 훈육과 기만 회유적 훈육방법으로 구분하고 남한의 학생들이 날이 갈 수록 민족적 및 계급적 당성이 높아가고, 반미 투쟁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일제 때 처럼 강압적 훈육법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만 회유하는 훈육법을 점차 이용하고 있다고 다음과 같이 선전하고 있다.

〃강압적 〈훈육〉을 강요하게 하는 바 그들은 각급 학교들에서 자기들의 비위에 거슬리면 처벌하거나 출학시키는 것을 비롯하여 책벌 법적 제재 등으로 위협한다.

그러나 미제와 괴뢰 도당은 오늘 남조선 학교들에서 훈육의 방법을 강압적 측면과 함께 회유 기만적 측면을 교활하게 배합하여 적용하고 있다. 〃

〃왜냐하면 미제와 괴뢰 도당은 남조선 청소년 학생들이 날이 갈수록 민족적 및 계급적으로 각성되어 가고 있으며 그들의 반미 투쟁이 더욱 높아가고 있는 조건하에서 일제 때 처럼 강압적 〈훈육〉에만 의거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기만적이고 〈온화〉한 수법과 수단으로 그들을 훈육하기 때문이다.

즉 미제와 괴뢰 도당은 마치 청소년 학생들의 처지에 〈동정〉하며

그들의 애로와 고민을 <해결>해 줄듯이 가장하는 방법을 이용하면서 노예적 도덕과 부패 타락한 <미국식 생활양식>을 침습 시키려 하고 있다."

남한에서는 학생들의 건전한 적응 발달을 돕기 위하여 각종 과학적인 test와 심리검사를 토대로 생활지도를 하고 있다.
북한 공산당은 이러한 생활지도를 기만 회유적 훈육방법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전한다.

"그것은 <생활지도>는 남조선 청소년 학생들을 우매화 하기 위하여 <학습자의 문제 해결을 증대>한다는 미명하에 반동적인 <단원학습>, <문제법>, <구안법>등을 강화하는 것이며 황당 무계한 미국식 각종 <테스트>, <검사>, <면접>, <직업·지도>등을 실시하여 <문제의 학생>, <주로 미제 노예교육을 반대하는 선진적 학생들>을 도와주는 듯이 하면서 기만 회유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생활지도의 한 방법인 상담에 대하여도 반공 도덕을 설교하며 브르죠아 사상을 주입하는 기만 방법이라고 다음과 같이 선전한다.

"미제와 괴뢰 도당은 남조선의 학교와 교원들에게 소위 <상담 방법>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정보>를 주고 <제언>이나 <충고>를 주면서 그들을 <선도>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이 경우 <교도>는 학생 <생활지도>에 있어서 학생과 의견을 교환하면서 학생들에게 <반공도의>를 설교하며 반동 부르죠아 사상을 주입함으로써 그들의 민족적 및 계급적 의식을 마비시키며 학생들의 고민에 대하여는 <위안>과 <동정>으로서 회유 기만하

여야 하는 것이다.〃

남한에서 사용하는 각종 표준화 검사 및 심리 검사에 대하여는, 황당 무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것으로 과학적인 양 가장하여 학생들을 식민지 노예로 회유하고 있다고 북한 공산당은 근거없는 비난을 하면서 상담 과정에서 표준화 검사를 악용하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선전한다.

〃그러면 이 <환자>들은 <상담>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취급되는가? 실예로서 이 황당 무계한 <표준화 검사>의 결과 <지능계수>가 모자라고 가정이 빈한한 학생이 만일 학자가 되려는 목표를 세우고 공부 하면서 고민한다면 <교도>는 그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러저러한 숫자와 <자료>로써 <환자>에게 설명한다. 학자의 지원이 학생 자신의 능력이나 <성격>에 맞자 않는다는 구실을 붙여 그의 전진을 가로 막는다. 그리고 그 학생에게 식민지 노예로서 불평없이 일할 수 있는 <알맞는 목표>를 세워준다.

특별 활동에 대하여 북한은 다음과 같이 비난 선전한다. 특별활동을 통하여 민주주의를 강요하고 학생들의 민족적 및 계급의식을 말살시키려고 남한이 획책하고 있다고 하면서 특히 <홈 룸>을 통하여 착취 사회의 모순을 은폐하며 노자 협조 사상을 은밀히 주입하고 있다고 다음과 같이 북한은 선전하고 있다.

〃각급 학교들에 <특별 활동>이라는 시간을 정해 놓고 <자치회에 대한 훈련>, 각종 <클럽활동>, <써클 활동>, <홈 룸> <학교에서나 가정>등을 통하여 청소년 학생들의 민족적 및 계급

의식을 마비시키려 하고 있다. ……

미제와 괴뢰도당은 <특별활동>에서도 <홈 룸>에 특별한 의의를 부여 하고 있는 바 이 모임을 통하여 착취 사회의 모순을 은폐하여 노자 협조 사상을 은밀히 주입시키려 하고 있다.〃

행사 교육에 대하여도 북한은 왜곡 선전한다.

행사는 연중 227회나 되어서 방학을 제하면 거의 매일 1건씩의 행사를 하게 되며 이 행사의 목적은 <반공>을 강화하고 숭미 사상을 주입하는 데 있다고 다음과 같이 선전한다.

〃 미제와 괴뢰 도당은 <행사 교육>이라 하여 각종 행사를 통하여서도 학생들에게 노예교육을 강요하고 있다.

그들이 벌여놓은 행사란 그 전부가 <반공 도의 교육>을 강화하며 숭미 사상을 주입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행사는 연중 227회나 되는데 이것은 방학일수를 제외한다면 거의 매일 1건씩의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된다.〃

4. 남한의 교육실정에 관한 왜곡선전 내용

여기서는 북한 주민 학생들에게 남한의 교육 실정에 대하여 왜곡 비방하는 내용을 분석 기술한다.

북한이 남한의 교육실정에 관하여 왜곡 선전하고 있는 내용을 교육받을 권리의 박탈, 수학 조건의 악화, 인격의 기형화와 불구화 학생 및 교원들의 장래에 관한 암담한 전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비난하고 있다.

남한에서는 계급차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서 지배 계단에게는 교육의 문호가 개방되어 있으나 일반국민에게는 그 권한을 제한하여 식민지 노예로서 알맞게 우매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계단차별 교육을 하기 위하여 미국식 학교체계인 복선형 학제를 받아들여 지배계단과 일반국민이 다니는 학교를 구별할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은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을 막고 실업학교나 기술학교에서 식민지 노예로서 알맞는 기술공으로 훈련시켜 사회에 배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남녀 차별없이 교육받을 권리가 주어지나 남한에서는 남녀별 차별이 극심하여 여자들에게는 거의 교육받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다음과 같이 통계자료를 들어 선전한다.

남한에 있어서 남녀별 인구비는 49 : 51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시내 중학교 학생의 남녀별 비는 58 : 42 고등학교의 남녀별 비는 68 : 32 되고 통계 수자까지 (<대한교육년감>, 1961 년판 3.44 595~598 페지) 제시한다.

그리고 남녀별 차별 뿐만 아니라 농촌에 대한 중세기적 억압 착취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농촌 주민들을 우매화하기 위하여 도시와 농촌간의 차별교육을 하고 있다고 조작된 통계숫자까지 예 증하면서 선전 왜곡하고 있다.

고등교육 및 중등교육의 기회도 일반국민에게는 대단히 제한하는 바 소위「일류교」라는 것이 있어서 여기에는 지배계급의 여자들만이 다니고 있으며 이들만이 고등학교나 대학에 갈 수 있고 여타의 학교에 다니는 일반국민의 자녀는 실질적으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을 박탈하고 있다고 북한은 선전한다.

일반국민들의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박탈하고 있는 것은 남한의 학원의 모리화정책이라는 것이다. 전쟁준비에 여념이 없는 남한은 모자라는 군사 경찰비를 <등록금><기부금> <기성회비>, <교실증축비>등의 명목으로 학원에서 걷우어 들이고 있기 때문에 일반대중은 경제력이 없어 사실상 학교를 포기하는 형편에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와 같이 계급 차별 교육 때문에 남한의 일반국민은 교육받을 정당한 권리를 박탈 당하고 있다고 선전한다.

교육시설에 대하여는 북한공산당이 어떻게 선전하고 있는가?

교실 및 시설, 교원부족에 대하여는 갖가지 날조된 통계 숫자이거나 남한 출판물의 일방적인 해석 인용을 하여 객관적인 양 자료를 제시하면서 선전을 하고 있다. 그들의 선전 숫자에 의하면 1961년 현재 중학교의 부족 교실은 소요교실 33.6%, 고등학교

는 16.4%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1959년 현재 국민학교 기존 교실의 50%가 노후교실이고 이중 40%는 교실로 쓰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것이라고 선전한다.

각종 시설에 대하여도 날조된 통계숫자를 제시하고 있는바 1961년 현재 실험실이 없는 학교가 중학교에서는 전체의 79.1%가, 고등학교에서는 48%나 된다고 선전한다.

교원부족에 대하여도 남한의 출판물에 의한 통계 숫자를 일방적으로 인용하여 제시하고 있는바 그 숫자는 다음과 같다. 1960년 현재 부족교원은 중학교에 있어서 소요 교원의 49.3%가 고등학교에 있어서 45.6%나 된다고 한다.

이와 같이 교실 및 교육시설이 충분치 못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뿐만 아니라 교원도 부족하여 교육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으나 남한이 이와 같은 수학 조건을 개선하지 않고 있고 또 못하고 있는 것은 전쟁 준비를 위한 막대한 군사비의 지출 때문이며 동시에 일반국민들의 교육 기회를 박탈하여 그들을 착취계급에 알맞는 노예로서 우매화시키기 위함이라고 선전한다.

학생들의 지적 발달을 억압하면서 낡은 브르죠아 사상과 미국식 생활양식을 주입시킴으로서 도덕적으로 부패시킬 뿐만 아니라 체력을 파괴함으로써 학생들의 인격을 기형화 불구화 시키고 있다고 북한은 선전한다.

지적 발달을 억제하기 위하여 10분의 9는 불필요하고 10분의 1은 왜곡된 지식으로 학생들의 머리의 부담을 과중케 하고 특

<사회 생활>과는 정치, 경제, 법률, 도덕, 지리, 역사, 등을 한데 어 허위 날조한 <반공>사상과 온갖 종교적 미신, 각종 관념론의 찌꺼기들을 주입시키면서 체계적인 사회학 지식의 습득을 방해, 하는 것은 남한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회악의 근본 원인이 미국의 식민통치제도에 기인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며 계급투쟁 의식을 말살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선전하고 있다.

"정치, 경제, 법률, 도덕, 지리, 역사등 과목등을 <사회 생활>과라는 한개 학과목으로 통합하여 학생들에게 <반공>사상과 온갖 종교적 미신, 각종 관념론의 찌꺼기들을 주입시키면서 사회현상에 대한 체계적이며 과학적인 지식을 주지 않고 있다."

"미제와 괴뢰 도당은 남조선 청년 학생들이 사회 발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없게 함으로써 남조선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회악의 근본 원인이 미제의 식민지 통치제도에 기인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며, 청년 학생들의 민족적 및 계급적 의식을 마비시키며 그들의 투쟁 의식을 말살하여 보려고 악날하게 책동하고 있다"

그리고 자연 과학의 시간을 줄이고 제한하는 것은 과학적 세계관의 형성과 객관적 사고 및 자립적 사고의 발달을 방해하여 학생들을 우매화 시킴으로서 계급의식을 말살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왜곡하고 있다.

"예컨데 대학 진학에서도 정치 경제 법률등을 전공하는

<사회과학> 계통학과는 항상 정원을 초과하고 있으나 수학, 물리, 화학, 생물등 자연과학 계통의 학과는 정원의 절반도 미달하고 있다. (<대학교육 년감>, 1955년, 南, 188~308 페지)!

" 1960년 11월 실시한 서울시내 전체<국민학교> 5학년 학생들의 시험 성적에서 <자연>과목은 최우등생이 단 한명도 없는 형편이다"

" 1960년말 남조선 전체<중학교> 2학년생중 10%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 <과학>과에 대한 시험을 실시한 결과 총평균 39점이며 그중 체온 재기를 할줄 아는 학생은 불과 4.7%이고 시험관에 시약 따르기를 할줄 아는 학생은 1.8%에 불과 하였다"

미국의 식민지 지배와 착취를 은폐하기 위하여 저속한 미국식 생활양식과 인간 증오 사상, 그리고 부르죠아 사상을 국민과 청소년 학생들에게 침습시키므로써 학생들을 도덕적으로 부패 시키고 있다고 북한은 다음과 같이 선전한다.

"미제와 괴뢰 도당이 다년간에 걸쳐 <미국식 생활양식>과 반동적 부르죠아 사상을 침습 시키기 위하여 악날하게 책동한 결과 일부 청소년 학생들 속에는 <미국식 생활양식>과 반동 사상 독소에 감염되는 현상들이 적지않게 일어나고 있다. 그러한 표현으로 일부 남조선 학생들속에는 숭미사상과 사대주의 사상이 침습되어 민족적 허무주의에 빠져들어가며 부패 타락한 비도덕적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식 생활양식>에 오염된 남한 학생들은 황금숭배의 착취 사상과 극단적인 개인주의에 빠져 범죄는 말 할것도 없거니와 조국, 국민, 친구, 조직, 단체도 모르고, 부모 친척도 모르는 패덕한 자로 전락되어 있다고 하면서 왜곡 선전하고 있는바 그들의 선전내 내용을 발취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남조선의 일부 학생들은 개인의 <성공><출세>에만 사로잡히고 있는바 (1958년 서울<문리과대학>에서 실시한 <고등학교>졸업생 약 300명에 대한 <직업관>조사에 의하면 그들이 희망하는 직업은 첫째로 무역업자, 다음으로 <국회의원>, <장관>이였다. 이것은 남조선 청년 학생들이 인민들을 착취 억압하는 자가 되더라도 자기만 잘 살게만 된다면 그것을 <성공>과 <출세>로 아는 <미국식 생활양식>에 오염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 전라남도지방 <중고등학교>학생들에 대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장래 출세를 위하여 부자집 딸과 교제하고 싶다는 사실도 있었으며 .... "

" 원래 <미국식 생활양식>은 그 동기와 행위가 아무리 악독하고 파렴치하여도 <성공>만 한다면 그 것을 (善)이라고 하는 강도의 생활양식이다

" 괴뢰 도당이 극히 축소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1960년 8월말 까지의 1년동안에 1만5,000명의 소년 범행자를 체포하였는데 그 대부분이 학생들이라는 사실과 그들의 범죄행위

의 내용이 특수절도 강도, 강력범등이 76%이상을 차지하고 살인 강간, 사기, 횡령, 폭행등 어마어마한 죄행들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할때 미제 야수들이 학교교육을 통하여 <미국식 생활양식>을 부식한 후과가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다."

"한 중학교 학생이 돈 2만환때문에 자기 사촌누이동생의 골을 까서 한강에 처넣었으며 19세난 소년이 자기를 놀린다하여 두살 아래의 자기 동생과 그 동무들을 죽이는 놀랄만한 범죄행위까지 감행하였다."(※ 이 부분은 Point 가 큰 고직 활자로 강조하였다.)

무시험진학이 실시되기전 입학 경쟁의 과열로 국민학교 학생들의 체력이 떨어진 문제로 크게 보도 되었던 일이 있다. 북한은 이 일에 대하여 여러가지로 비난 왜곡한다.

미국의 식민지 약탈정책과 남한의 착취정책으로 극심한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는 남한에서 학생들의 영양부족으로 인한 체력의 파괴는 당연한것 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전하고 있다.

"남조선 출판물에 의하면 1961년 4월말 현재 학생들중 하루에 한끼 굶는 학생이 약 75만명에 달하며 두끼씩이나 굶는 학생은 20만명에 달하고 있어 적지 않는 학교들은 수업조차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에 있다."

"경상북도 달성군 화원<국민학교>는 전교생의 93%가 결식 아동이어서 수업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왔다.

또한 곡창지대인 전라북도 군산에서는, 해도 바뀌기 전에 <국민학교>아동의 약 40%가 하루 한끼 또는 두끼씩 결식하는 형편이었으며 421명의 학생은 기아선상에서 헤매고 있는 참상을 빚어내고 있었다" (※ 이부분은 Point가 큰 고직활자로 제시하였다.)

보건위생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기 때문에 국민학교 아동의 60% 이상이 결핵 보균자이며 많은 학생이 기생 및 병마에 시달리고 체력이 파괴되고 있다고 북한은 다음과 같이 선전하고 있다.

"남조선 출판물에 의하더라도 1960년도에 <국민학교>아동의 60%이상이 결핵균 보균자이며 (<서울신문>, 1960년 8월 29일부) 서울시 내만 하여도 전체 학생의 70%가 구루병 환자이다 (<한국일보>, 1961년 6월 2일)"

과중공납금 때문에 학생들이 구두딱기, 장사"등으로 학비를 조달하기 때문에 또는 피까지 팔아 학비를 조달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학생들의 체력은 여지없이 파괴되고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선전한다.

"남조선 학생들 중학교에서 부과하는 막대한 <공납금>과 <납부금>을 물기 위하여 밤 늦도록 구두닦기 담배장사를 하거나 자기의 피끼지 팔지 않으면 안되는 수많은 고학생들의 건강에 대하여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Ⅳ. 요 약 및 제 언

연구 목적에서 밝힌 바와 같이 남한의 교육에 관하여 북한이 북한 주민, 학생들에게 왜곡 선전하고 있는 내용을 다음과 같은 영역으로 구분하고 문헌 분석을 통하여 고찰하였다.

(1) 남한의 교육이론을 어떻게 비판하고 왜곡 선전하는가?

(2) 남한의 교육정책에 대하여 어떻게 비난 선전을 하고 있는가?

(3) 남한의 교육목표에 대하여 어떻게 왜곡 선전하고 있는가?

(4) 남한의 교육 내용에 대하여 어떻게 왜곡하고 있는가?

(5) 남한의 교육방법에 대하여 어떻게 왜곡 선전하고 있는가?

(6) 남한의 교육실정에 대하여 어떻게 왜곡 선전하고 있는가?

북한은 남한 교육의 이론적 근거는 Dewey 의 실용주의 철학에 입각한 진보주의 교육에 있다고 말하면서 진보주의 교육이론은 유용한 것만이 진리라고 강조한 나머지 아동에게 유용한 것만을 가르친다. 따라서 유용한 것이라는 범위로 아동의 학습은 제한되어 협애하고 천박하고 피상적인 경험 즉 왜곡된 경험만 아동들로 하여금 하게 함으로서 그들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의 습득을 방해하는 것이 진보주의 교육이론이라는 것이다. 남한은 미국에 의하여 이러한 이론을 받아 들여 학생들로 하여금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지식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함으로 그들의 객관적이고 자립적인 사고 및 사회에 대한 옳바른 통찰을 막아서 계급의식을 말살시키고 식민지 노예로서 미국과 지배계급에 순종하는 우매한 대

중을 길러내고 있다고 북한은 왜곡 선전하고 있다.

미국의 지배하에 있는 남한은 전적으로 노예 교육제도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우매화 교육정책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우매화 정책이란 학생들에게 깊은 사회현상에 대한 이론이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없도록 방해하여 자립적이고 객관적인 사고와 세계관 형성을 막아서 계급의식을 말살하고 학생들을 미국과 지배계급에 복종하는 부지런한 노예를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북한은 날조된 비난과 선전을 하고 있다.

그리고 남한에서는 <반공·도덕>을 근간으로 미국의 식민통치를 합리화하며 미국식 생활양식과 문화를 학생들에게 배우도록 강요하고 있으며 홍익인간이란 미명하에 학생들은 미신과 신비주의, 종교적 편견등 온갖 몽매주의에 빠지게 하여 민족적 이익도 계급적 이해관계도 초월한 융화사상과 굴종사상에 물젖게 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남한은 전쟁준비를 위하여 학원을 군사화하고 있으며 군사화는 자연 학생들의 거센 반발을 억압하기 위하여 군사화와 동시에 파쇼화를 획책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학원을 착취 수단화하여 각종 잡부금과 등록금의 명목으로 막대한 돈을 거두어 들여 정치자금과 모자라는 군사, 경찰비를 충당하고 있다고 선전한다. 이와 같이 학원을 모리화하여 거금을 학생들로부터 징수하게 됨으로 지배계급이 아니면 학교에 등록금을 낼 수 없어 스스로 교육받을 권리를 포기하도록 만들고 있는바 이것

도 우매화 정책의 일방법이라고 왜곡하여 북한 주민, 학생들에게 선전한다.

교육내용에 대하여는 어떻게 왜곡 선전하고 있는가?

남한에서 필수과목 총시간의 46 ~ 56 %을 <반공·도덕>에 배당하여 가장 강조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강조하는 것이 실업교육, 교련교육이라는 것이다.

<반공·도덕>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과목을 통하여 미국의 식민착취와 지배계급의 착취를 합리화하고 미국식 생활양식을 주입시켜 민족적 이익도 계급적 이해관계도 모르는 오직 개인만을 아는 패덕자를 만들어 식민지 노예로서의 성격과 습성을 기르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실업교육을 강조하는 것은 아무리 우매화시킨다 하더라도 충직한 노예로서의 최소한도의 지식과 기술은 필요하다. 필요한 최소한도의 기능과 지식을 소유한 부지런한 노예가 남한의 지배계급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강조하고 있다고 북한은 선전한다.

군사교육은 전쟁도발을 위해서 체육시간까지도 모두 군사훈련에 집중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반공·도덕>, <실업>, <군사>교육을 강조하는 반면에 사회과학이나 과학을 두리뭉실 소홀히 다루어주고 있는 바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학생들을 우매화 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역사, 지리, 경제, 정치 등은 각각 그 지식의 체계가 다른 학문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분야를 <사회생활>이라는 과목으로 두리뭉실 묶어

가르치는 것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의 습득을 막고 단편적인 경험만을 주어 우매화 시키므로서 사회에 대한 옳바른 통찰과 계급투쟁의 폭발을 사전 막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선전한다.

그리고 <생물>, <물리>, <화학>등은 엄연히 체계가 다른 학문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이라 한데 묶어 두리뭉실 가르치고 있는바 이것도 <사회생활>을 두리뭉실 묶어 가르치는 것과 똑 같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사고 발달을 막아 학생들을 우매화 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북한은 선전한다.

남한의 교육방법에 대하여는 어떻게 선전하고 있는가?

북한은 교육방법을 교수방법과 교양방법으로 구분하는 바 전자는 우리의 수업방법에 후자는 생활지도법에 대조되는 말이다. 교수방법은 다시 식민지 노예교육 방법인 주입식 교수법과 학생들의 자립적 사고와 창발성을 고도로 발휘케는 계발식 교수법으로 구분하고 북한에서는 계발식 방법을 전반적으로 택하고 있는 반면에 남한에서는 우매화 교육정책에 따라 주입식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교양방법에도 학생들에게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줌으로서 가슴속으로부터 공명을 주어 교화시키는 감화법과 억압과 회유를 특징으로 하고 있는 훈육법이 있는 바 북한에서는 긍정적 모범에 의한 감화법을, 반면에 남한에서는 훈육법을 사용하여 학생들을 착취 계급의 도덕과 생활양식에 부응할 수 있는 노예로 만들기 위하여 획책하고 있다고 북한공산당은 선전한다.

남한의 교육실정에 대하여는 어떻게 왜곡하고 있는가?

미국식에 의한 복선형 교육제도를 남한이 미국과 결탁하여 받아들

인 것은 근본적으로 계급차별 교육을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지배계급은 일류학교 대학까지 갈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있으나 일반대중은 여러가지 그럴듯한 구실로 교육받을 권리를 제한하며 설령 진학을 한다 하더라도 하급 실업학교 정도에 머물고 있다고 비난한다. 그리고 남녀별 차별 교육을 하고 있으며 농촌에 대한 중세기적 억압 착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히 농촌에는 교육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선전한다. 그리고 학원의 모리화로 인하여 거액의 금액을 학생들로부터 거두어 군사, 경찰비에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대중의 자녀는 이러한 경제적 부담능력이 없어 스스로 교육 받을 권리를 포기하도록 하고 있다고 북한은 선전한다.

터무니없는 교실, 교육시설, 교원의 부족은 수학상 많은 지장을 초래하여 교육이 거의 위기 상태라고 각종 남한 출판물에 의한 통계의 일방적 해석과 인용이나 날조로 북한 주민들에게 왜곡 선전하고 있다.

학생들의 지적 발달을 억압하고 미국식 브르죠아 도덕과 극단적인 이기주의, 찰라주의를 주입시켜 집단도 국가도 계급도 부모도 모르는 패륜아로 학생들을 만들어 살인, 방화, 강간 범죄들이 남한 사회에 만연되 있다고 북한공산당은 선전한다.

이상에서 북한공산당이 남한 교육의 실정에 대한 왜곡 선전하는 내용을 요약하였다.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북한공산당은 북한 주민이나 학생들에

게 철저한 공산사상의 주입과 더불어 남한의 교육에 대하여도 터무니 없는 날조와 비난 선전을 함으로 왜곡시키고 있다. 통제된 사회속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은 북한공산당이 선전하는 내용에 의심을 품는다 하더라도 이 의심을 풀길이 없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은 북한공산당이 선전하는 내용에 대하여 의심 품던 안 품던 간에 일단 그대로 믿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이 왜곡하여 남한의 교육을 알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이러한 생각을 짧은 기간의 접촉과 대화를 통해서 바로 잡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앞으로 다가올 북한 주민들과의 대화를 대비해서 우리는 어떻게 북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저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주고 성공리에 대화를 이끌 수 있는 실력을 갖도록 배양할 것인가?

대화의 성공을 위한 길은 우리의 교육실정 뿐만 아니라 북한의 교육에 대하여 그 장단점을 잘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우리 자신을 잘 하기 위하여 북한공산당이 우리의 교육에 대한 비판과 비난, 그리고 왜곡하고 있는 것을 잘 안다는 것은 사전에 우리의 약점을 보완하고 상대의 헛점을 찌를 수 있는 성공적인 대화의 길잡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의 내용은 일반대중에게 주지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의 교육은 북한의 교육실정을 왜곡하여 가르치기 보다는 액면 그대로 가르치되 그 뒤에 숨어있는 공산주의의 나쁜 점과 모순점을 파헤쳐 주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 교육의 장점을 대담하게 인정하는데 궁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단점에 대한 비판도 합리적이고 근거있는 비판이 되도록 역

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북한공산당이 비판하고 있는 우리의 교육에 대하여는 재비판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의 연구가 있어야 하겠다.

북한의 교육을 비판함에 있어서는 비판 근거를 합리화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북한을 아는 것과 동시에 북한이 우리 자신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를 아는 것은 북한을 이기는 중요한 길이 된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이 남한에 대하여 어떻게 알고 있는가를 파헤치는 연구가 앞으로 많이 이루어져야 하겠다.